

‘4강 전쟁’... 호랑이 후반기 대반격

① 프로야구 전망대

울스타 브레이크 휴식대신 훈련... LG·NC 원정 6연전 돌입

진짜 순위 싸움이 시작된다.

프로야구가 울스타 브레이크를 끝내고 23일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1위 삼성부터 6위 롯데까지 6.5게임차로 총출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매경기 자리가 뒤바뀔 수 있는 치열한 순위싸움이 예상된다.

5위에서 전반기를 마감한 KIA는 원정 6연전으로 후반기를 출발한다. 상대는 신비람 질주를 하고 있는 2위 LG 그리고 파기로 무장한 신생팀 NC다. LG와의 전적은 4승5패로 뒤져 있고, NC와는 첫 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5승1무2패를 기록하고 있다.

주중 잠실 승부는 KIA의 후반기를 가늠해 보는 시험대이자 설욕전이다. 앞선 LG와의 승부는 KIA에겐 악몽의 3연전으로 남아있다.

휴식기 이후 가진 5월31일 LG와의 휴경기. 1-2의 팽팽하던 승부는 7회 9실점의 불소와 함께 충격의 패로 끝났다. 6월1일, 8회 5실점으로 다시 또 뒷심대결에서 밀리며 3-7패. 3연전의 마지막 경기는 패배의 백미였다.

양현종이 70닝 무실점의 호투로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4-0에서 시작된 9회. 4점의 리드가 있었지만 8회부터 등판했던 앤서니가 다시 또 9회 흔들렸다. 벤치도 이렇다할 묘수를 내지 못하면서 속수무책 동점을 허용했다.

LG 투수 임정우가 대주자로 나선 9회에 이어 10회 연장 승부에서는 내야수 문선재가 포수로 등장했다. 하지만 KIA는 그 틈을 파고 들지 못하면서 4-5 역전패를 당했다.

우승후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야 했던 충격의 패. 반면 LG는 대역전극 이후 순위 싸움에 날개를 달면서 2위 자리에서 전반기 일정을 끝냈다.

휴식기 이후 경기에서 2승1무5패의 전적에 그친 KIA는 이번 울스타 브레이크 때 휴식보다는 훈련에 집중했다. 20일에는 무등경기장에서 야간 청백전을 하면서 장맛비에 식어버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반기 출발을 앞두고 마운드에 변화를 줬다.

팔꿈치가 좋지 않아 지난 4월28일 재활군으로 내려갔던 최고령 최형남이 노련미를 앞세워 1군 재진입에 성공했다.

마운드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새 얼굴도 등장했다.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투수 김윤동도 1군 콜업을 받았다. 김윤동은 지난해 입단한 고졸 2년차지만 투수로서는 첫 해다. 올 시즌 투수로 전향해 140km 후반의 묵직한 직구와 함께 슬러이다. 체인지업·커브를 구사하면서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강속구의 대결이 펼쳐진다.

KIA가 소사를 선발로 내세웠고 LG는 리즈를 마운드에 세운다. 소사에게는 LG전 3승 3도전(2승1패·평균자책점 4.00)이고 리즈에게는 3전4기(2패·평균자책점 3.71)다. 두 외국인 선수의 불꽃 강속구가 후반기 순위 전쟁의 시작을 알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7월 22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73	43	28	2	0.606	-
2 LG	76	45	31	0	0.592	0.5
3 넥센	74	41	32	1	0.562	3.0
4 두산	75	40	33	2	0.548	4.0
5 KIA	70	36	32	2	0.529	5.5
6 롯데	74	37	35	2	0.514	6.5
7 SK	74	34	39	1	0.466	10.0
8 NC	76	28	45	3	0.384	16.0
9 한화	74	22	51	1	0.301	22.0



울스타 브레이크를 끝낸 KIA가 23일 LG를 상대로 순위 싸움에 불을 밝힌다. KIA는 지난 20일 무등경기장에서 야간 청백전을 갖고 후반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만3000 탈삼진·3900 도루

선동열 감독 1000경기 출장

KIA 기록 달성 눈앞

프로야구의 기록은 계속된다.

전반기에 최다 홀드(118) 신기록을 작성한 LG 류택현이 후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투수 900경기 출장을 노린다. 앞으로 25경기에 이름을 올리며 900경기를 채우게 된다.

동료 이상열은 국내 투수 최초로 4년 연속 70경기 등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열은 전반기 37경기에 출전했다.

삼성 안지만은 우완 최초 100홀드에 5개를 남겨두고 있다. 앞선 기록은 류택현·이상열·정우람(SK)·권혁(삼성) 등 좌완 투수들이 작성했다.

1홀드로 주춤했던 권혁은 두 자릿수 홀드를 위해 후반기 전력 질주에 나선다. 9개의 홀드를 더하면 국내 최초 7년 연속 두 자릿수 홀드다.

국민타자 이승엽은 9년 연속 20홀런(-11)과 10년 연속 200루타(-81)를 겨냥한다. 10년 연속 200루타는 프로야구 역대 첫 기록. 역대 6번째 300루타에도 50루타가 남았다.

장성호는 2000경기·2000안타 기록을 노린다. 지난해 역대 3번째로 2000안타를 채운 만큼 앞으로 36경기에 더 출전하면 양준혁·전준호에 이어 세 번째로 2000경기 출장과 2000안타를 달성하게 된다. 13개의 2루타를 추가하면 양준혁에 이어 두 번째로 400 2루타 고지를 밟는다.

KIA의 기록 도전에도 불이 붙는다. KIA는 프로야구 첫 2만 3000탈삼진과 3900도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반기에 488개의 탈삼진을 합작한 투수들이 앞으로 239개를 더하면 팀 2만3000탈삼진이 채워진다. 프로야구 첫 3900도루에는 30개를 남겨놓았다.

3300홀런을 위한 도전도 있다. 전반기 52개의 홀런포를 쏟아낸 타자들이 54개를 더해 두 번째 3300홀런을 만들지도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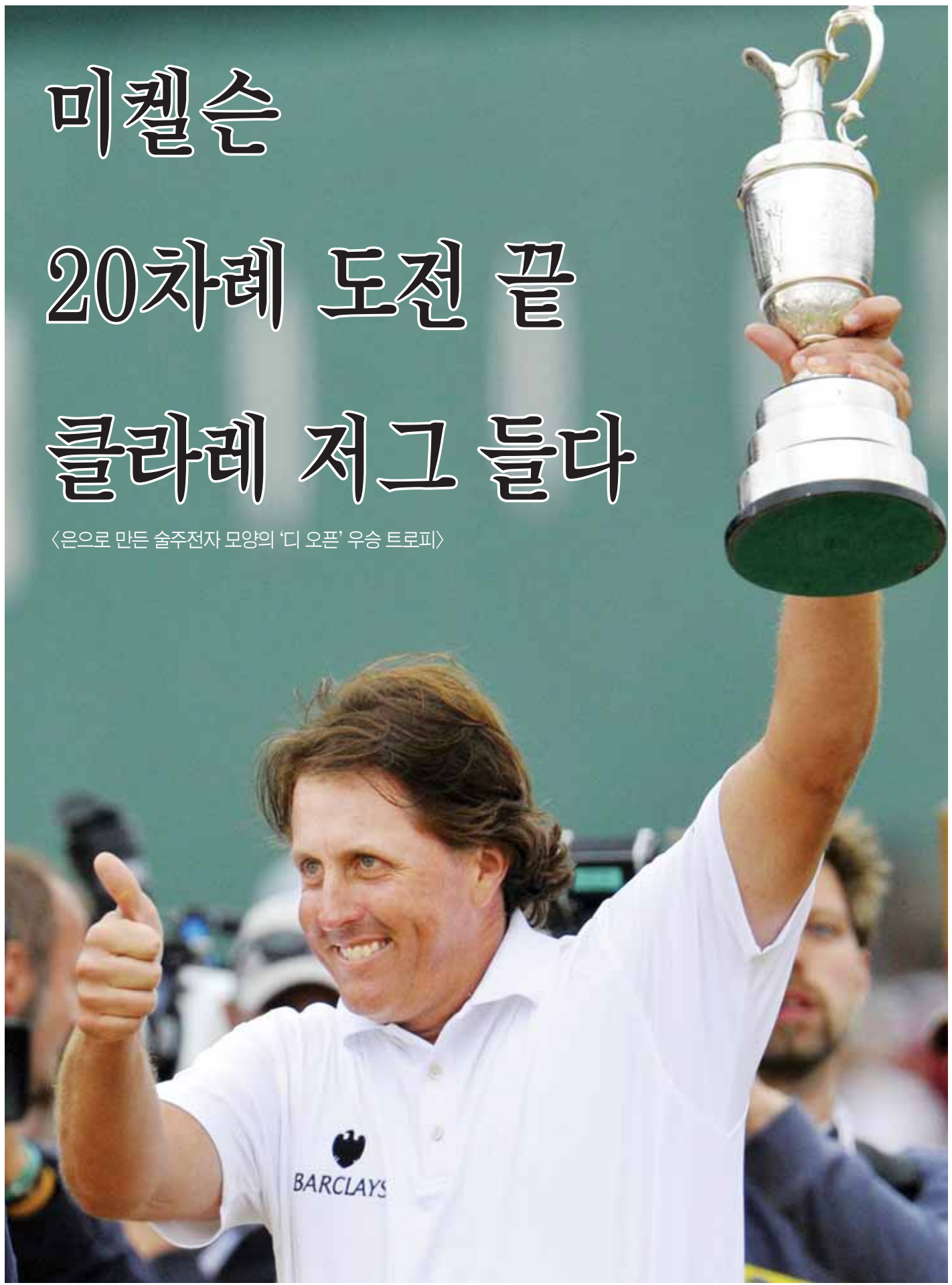
이범호·최희섭·나지완은 개인 홀런 기록도 노린다. 이범호는 200홀런(19번째)에 8개가 부족하고, 최희섭(-7)과 나지완(-14)은 100홀런을 위해 방망이를 든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윤석민은 1000탈삼진(-78·24번째), 1200이닝 투구(-2.1·51번째), 5000타자 상대(-236·41번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51개의 탈삼진을 더 뽑아내면 3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이 완성된다.

이용규(-38)·김주찬(-41)은 1100안타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인다. 46번째 600득점 기록을 위한 경쟁도 펼쳐진다. 600득점을 위해 김주찬은 5번, 이용규는 14번 홈을 밟아야 한다.

기동력 싸움에서는 김주찬이 한발 앞서있다. 23개의 도루를 더하면 7번째 350도루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용규는 250도루에 9개를 남겨두었다.

선동열 감독은 27경기를 더 지휘하면 1000경기 출장기록을 쓰는 10번째 사람답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켈슨 20차례 도전 끝 클라레 저그 들다

〈은으로 만든 솔주전자 모양의 '디 오픈' 우승 트로피〉

유럽링크스 깨고 브리티시 오픈 생애 첫 우승



필 미켈슨(미국)이 유럽 링크스를 깨고 생애 처음 '클라레 저그'(Claret Jug)를 차지했다.

미켈슨은 22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듀어필드 링크스(파71·7192야드)에서 열린 제142회 브리티시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쓸어들여 5안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합계 3안더파 281타를 적어낸 미켈슨은 선두와 5타차의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브리티시오픈 20번째 출전자의 첫 우승이었다.

미켈슨은 우승 상금 95만4000파운드(약 16억2000만원)와 함께 은으로 만든 솔주전자인 '클라레 저그'를 받았다.

미켈슨은 이년까지 마스터스에서 3승(2004년, 2006년, 2010년), PGA 챔피언십 1승(2005년)을 포함, 메이저대회에서 네차례 우승했지만 유독 유럽 대회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켈슨은 지난주 열린 유럽 프로골프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우승한데 이어 브리티시 오픈까지 제패, 유럽 링크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미켈슨은 US오픈 우승컵만 수집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올해 만 43세인 미켈슨의 우승으로 클라레 저그는 2012년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 2011년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에 이어 3년 연속 40대 선수의 품에 안겼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로 나서 21년만의 잉글랜드 챔피언 탄생의 기대를 모았던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마지막날 4타를 잃고 애덤 스콧(호주), 이언 풀터(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3위(1오버파 285타)에 자리했다.

2위는 이븐과 284타를 친 헨릭 스텐센(스웨덴)이었다. 톱 랭커들이 4라운드 중반까지 모두 상위권에 올라 우승자를 쉽게 점칠 수 없었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웨스트우드보다 5타나 뒤졌던 미켈슨은 12번홀까지 1타를 줄여 우승 가능성이 그리 커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3번홀(파3)과 14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미켈슨은 선두권 선수들이 잇따라 무너지는 사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스콧은 13번홀(파4)부터 4개홀 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무너졌다.

미켈슨은 17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로 불을 그린 위에 올린 뒤 2퍼트로 마무리, 가볍게 버디를 잡아내며 2위 그룹과의 격차를 2타로 벌렸다.

18번홀(파4)에서 미켈슨의 아이언샷이 다시 빛났다. 페어웨이에서 친 두 번째 샷은 그린 왼쪽 벙커 쪽으로 굴러가는 듯 했으나 슬라이스 라인을 그리며 홀 뒤쪽 3m 지점에 멈춰 섰다.

미켈슨은 회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3타차 단독 선두로 경기를 끝낸 뒤 우승을 확실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미켈슨은 "그동안 링크스 코스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샷을 날렸다"며 기뻐했다.

통산 15번째 메이저 우승을 노렸던 타이거 우즈(미국)는 아이언샷과 퍼트 난조에 고전하며 3타를 잃었다.

양용은(41·KB금융그룹)은 마지막날 1타를 잃어 중간합계 9오버파 293타로 공동 32위에 올랐다. 최경주(43·SK텔레콤)는 공동 44위(10오버파 294타), 김경태(27·신한금융그룹)는 공동 73위(15오버파 299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